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또 물건너 가나

원구성 늦어 심의 일정 빠듯...내달 8일 의결 목표

18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새해 예산안의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헌법 54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예결특위는 올해의 경우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시한을 일주일 가량 넘긴 12월8일 의결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예결위는 19~21일 종합정책 질의, 25~30일 부별 심사 활동을 벌이고, 27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12월8일까지 심사활동을 진행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예산안 심사가 늦어진 것은 무엇보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기 때문. 통상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되면 국정감사를 먼저 실시한 뒤 법안 및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파문으로 인해 국회 입기까지 82일째인 8월 20일에야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0월6일해야 시작됐고, 예산안 심사일정도 자동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관련,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16일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12월 8일까지만 처리돼도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커 다음달 8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겠다며 단단히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12월말까지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990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불과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 1997년, 2002년에는 선거운동의 필요성 때문에 11월 중 처리됐고, 나머지 3차례는 법정 시한 마지막날에 턱걸이로 처리됐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매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해 임시국회를 열어 각각 처리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2004년에는 12월31일 밤 12시가 거의 다 돼서야 처리됐고, 2005년에는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현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선이 있었던 작년의 경우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대선 이후 처리를 요구한 한나라당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12월28일에야 처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택분 과세 6억원 유지 무계

중부세 개정 윤곽...與선 1주택 3년 보유 땀 감면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우대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정치권에서는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 장기보유자 우대조치는 ▲적용시기를 당장 올해부터 하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1주택의 기준은 세대별로 하되,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공제폭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식은 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현재가 적시한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양도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1주택의 개념에 대한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올해 과세

분부터 담당 우대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미 현재가 일괄적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세대별합산의 위헌 결정으로 2006~2007년도분까지 일부 환급받게 된 세대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3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특례를 줄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9월말 중부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라는 정부의 주택분 과세 기준 조정안에 대해 ‘없던 말’로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중부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야당과의 절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고집해온 6억원 기준 유지안을 받아들여할 정치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檢, 김민석 최고위원 신병 확보 실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수사와 관련, 16일 오후 법원이 발부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김 최고위원이 농성을 벌이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수사관 10여명을 보냈으나 정문에서부터 민주당 의원과 당원 100여명이 검찰의 진입을 막는 바람에 김 최고위원을 구인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철수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 “사법부 결정에 따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당 당사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약간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 8월과

올해 2~6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7천만원 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두 차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김 최고위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14일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심문용 구인장을 집행하려 민주당에서 수사진을 보냈지만 민주당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가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15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공방했다. 한나라당은 사법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편파·표적 수사’라고 비판하며 당처원의 대응을 거듭 다짐했다.



박주선 의원 후원 모임 'Love J S' 창립

박주선 국회의원의(민주·광주·동구) 전국 후원모임인 'Love J S 중앙위원회' 창립총회가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 삼영애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유대명 동구청장과 오주 전 광주시의회의장, 전국에서 박 의원 지지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대한민국 공당인 민주당이 부정비리 혐의자의 도피처가 됐고 국회의원이 부정비리 혐의자를 법으로 도피시키기 위한 사수대가 된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검찰이 영장을 강제집행하려고 할 경우 전 당원이 총단결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중부세 완화 반대' 공세 강화

민주당은 16일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중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내놓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현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체적으로 중부세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할 만큼 현 제도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부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세형평성과 중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4조정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물세

(物稅)인 중부세에 소유자의 보유동기나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 본질에 어긋난다”며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괄적 감면은 중부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으로, 과세형평성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부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중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국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국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동파
국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눈술 참석지도 실시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국내영고시학원 수강 문의 **광주 (대)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최저학 수강 등록시" 주부반·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 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접인용을 위한 교육보험 발급과정
국비무료 개강일정 확인

본원 ☎ 227-8003 전당여고 맞은편 3F
점원 ☎ 971-0002 (구비비트 점원점 옆 영주은행 4F)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10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국비무료

처음시작하신분들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급 학원 ● 인문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529-8111

=지금도 지혜로운 많은 수험생들은 47년 전통의 무등을 찾고 있다 (청강현영)=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 직종·해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견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11월 17일(주) 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 6개월 :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 주·야간반+기초(寒) 무조건 강
※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실함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